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욥 1:2)

동경, 일본의 심장

오래 전부터 세계 3대 도시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런던(영국)과 뉴욕(미국)과 함께 일본의 동경을 지칭합니다. 이들 3대 도시는 금융, 경제, 문화 등에 있어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중추적 도시군(都市群)을 의미합니다. 물론 ‘세계 3대 도시’라는 말은 국제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정의나 선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과 뉴욕 그리고 동경은 오랫동안 세계 3대 도시를 언급할 때마다 거론되어 올 정도로, 특히 동경은 일본의 얼굴, 혹은 일본의 심장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일본의 관동지방에 위치한 동경(東京)은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특별구로서 23구(区), 26시(市) 5초(町) 8촌(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경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동경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의 인구는 3700만명으로 세계대도시권 랭킹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참고, 1위 자카르타, 2위 다카). 수도권의 인구는 일본 총인구의 3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경의 경제력은 총생산이 약 120조엔(약 8,600~8,800달러)으로 일본 전체의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 20%를 차지하며, 이는 세계의 한 나라에 필적할만한 경제규모입니다. 또한 수도권(1도, 3현)의 GDP는 일본 총생산의 35~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경에 있는 대학수는 143개(1위)로서 2위의 오오사카부에 있는 대학수의 3배 정도되는 수치입니다. 또한 수도권(1도, 3현)의 대학수는 231개로 점유율은 28.4%입니다. 이 수치는 일본 대학의 4분의 1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는 계산입니다.

한편 2025년 연간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수는 4,268만명으로, 2024년의 약 3,687만명을 상회하는 과거 최다가 되었습니다(전년비 15.8% 증가). 월별로는 2024년 이후 1개월당 300만명전후로 추이되며 2019년(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명확하게 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동경에서 보는 일본의 종교, 경제, 문화

여름과 겨울 방학이 되면 일본열도는 한국교회의 단기선교팀(주로 청소년, 대학/청년부) 방문으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되지만,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수 많은 한국교회 단기선교팀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외 미국 교회, 싱가포르 교회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일본선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 성도들, 교회 지도자들도 다양한 형태로 일본을 방문하며 일본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사역하는 카츠타다이교회(치바현에 위치)에도 1년에 몇 차례

단기선교팀과 협력해서 일본선교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기선교팀이 올 때마다 가능한 동경을 방문하는데 그 때 마다 주로 세 곳, 즉 아사쿠사절, 스카이트리, 우에노공원을 찾습니다. 특별히 이 세 곳을 방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곳들을 보면 일본의 종교, 경제, 문화를 하루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아사쿠사절(淺草寺, 센소우지)

일본의 종교를 상징하는 아사쿠사절은 동경에서 제일 오래된 절로서 628 년에 창건됩니다. 이는 이슬람교보다도 빨리 세워진 셈입니다. 이 절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매년 정월의 초예(初詣, 하츠모우데)에는 수 많은 참배객들이 방문하며, 참배객수는 항상 전국 10 위권에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곳은 동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로서 매일 매일 가득찰 정도입니다. 어떻게 매일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할까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절의 내부로 들어가면 일본인들의 종교심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본인들의 종교관은 진리를 찾는다고보다는 무사와 번영 그리고 성공에 집착하기 때문에 절은 그야말로 부적이나 운(운세) 등 상업적 물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다. 이 곳에 오면 일본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너도 나도 물품을 구입하느라고 야단법석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이 소원을 부탁하는 상대는 아무것이든 좋다(고리야꾸 신앙, 御利益信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편 역사가 깊은 아사쿠사는 특히 근대(메이지유신) 이후 서민들의 변화가와 오락장소로서 발달하고, 아사쿠사절은 그 심볼적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는 상업시설, 전망탑, 일본의 희가극, 유원지 등 수 많은 상점과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2) 스카이트리 (TOKYO SKYTREE)

스카이트리는 동경의 랜드마크이자 일본 경제의 심볼입니다. 2012 년에 완성된 스카이트리는 전파탑과 관광시설로서 개업을 하였습니다. 높이는 634 미터로 상업시설(동경 소라마치)과 오피스빌딩(동경 스카이트리 이스트타워)이 병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이 곳의 방문자는 3,000 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단기선교팀이 이 곳을 방문하는 목적은 단순히 일본의 경제력을 보면서 감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경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동경을 방문하는 일본인들이 스카이트리와 디즈니랜드에는 꼭 가보고 싶어할 정도로 이 곳은 매력적인 곳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곳을 방문하는 단기선교팀은 기독교적 경제관을 배움과 동시에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의 현실을 보면서 해 아래(하나님을 떠난 인생)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 1:2,3)라는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곳에서 학생들/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젊음의 때를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바른 경제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고, 3) 우에노 공원에 대해서는 9월 선교편지에 게재하겠습니다)

2. 우리 가족

여름방학 기간동안 언니와 함께 있었던 둘째 주향이는 8월 중순 학교가 있는 달라스로 돌아가서 2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첫째 주은이는 교회사역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를 위해서도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중보기도는 선교사의 힘의 원동력입니다.

1. 공적인 주일예배와 사적인 평일예배를 통해서 믿음/소망/사랑의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고 매일 참된 예배자와 고백자로 살게 하소서
2.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쁨/기도/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소서
3. 연로하신 성도들과 병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4. 주은-교회 사역에 충성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소서
주향-8월 마지막 주간부터 시작되는 새학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5. 후원금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지게 하소서
6. 우리 부부가 늘 영육간에 강건하며 일본인들을 사랑하며 잘 섬기게 하소서

2026년 8월 1일(토)

일본 카츠타다이(勝田台)에서

김기태/김혜금(주은, 주향) 드림